



(주)TS해마로식품
충청지역 협력소장

10월

유재석의 육계사양관리 핵심포인트

우리나라 가을철의 기온은 육계사육에서는 무난한 자연환경온도(21℃)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방계사든 무창계사든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성적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달은 환절기이면서도 다가올 겨울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의 계사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약하고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육을 할 수 있는 무창계사라는 완벽한 환경을 갖춘 경우는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장에서는 동절기 계사관리를 10월에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계사 및 내부시설의 미비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단열수준이 낮다.
- 완전밀폐가 되지 않아 셋바람이 들어온다.
- 입추수수에 비해 열풍기 용량이 적다.
- 계사 시설에 비해 입추수수가 많다(밀사).
- 직접열풍기 사용 농장이 70% 이상 된다.
- 입추 후 10일령까지의 조도가 매우 낮다.
- 급수기 갯수가 현저히 적다.
- 입추수수에 비해 환风量이 적다
- 습도유지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부족하다.
- 깔짚두께가 얇다.
- 계사바닥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
- 계사평수로 입추수수를 결정한다.
- 계사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1. 무창계사의 관리사항

무창계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열이 이루어져 있고 마감을 꼼꼼히 했다면 셋바람이 없기 때문에 크게 외형적인 관리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환절기와 동절기에는 계사내 습도와 환기가 가장 문제되므로 습도유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컨설팅한 농장의 경우 안개분무 장치를 설치한지 2년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즐이 막혀서 분무가 잘 되지 않거나 안되거나 물이 똑똑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설이 있더라도 주기적인 관리가 안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소용없다.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막혔으면 하나하나 뚫어야 한다.

환기방법은 계절적으로 크로스식 환기가 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벽면의 환기 환 용량을 점검하고 작동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무창계사는 계사의 외형적인 관리보다 내부의 습도설비와 환 관리가 10월에 관리요점이다.

2. 개방계사의 관리사항

10월달 계사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방계사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개방계사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사를 완전히 밀폐시키는 일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섯바람에 의한 호흡기 질병 발생이 사육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을 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모든 농장이 무창계사처럼 완전 밀폐를 하고 사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닐이나 보온덮개를 이용해서 계사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사관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계사단열을 보강하는 것이다.

필자가 관리하고 있는 개방계사의 단열수준은 지붕이 5내외, 벽면이 3내외 정도로 기준에 50%도 안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 개방계사도 크

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다.

단열이 부족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 것이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온도를 낮추다보면 정상 사육이 불가능할 것이다. 겨울이 되기 전에 보온덮개라도 덧씌우고 벽면도 2중 비닐을 쳐서 단열효과를 최대한도 유지해줘야 한다.

물방울이 생기고 계사가 습한 이유는 단열이 잘 안된 계사에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충분한 환기를 못해줘서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추운 겨울에는 계사 내부온도와 외부온도의 심한 기온차이에 의해서 습이 발생하는데 단열만 잘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계사내 온도가 기준(21℃내외)보다 낮으면 사료효율이 나빠지거나 증체가 지연되므로 겨울철에 적정 사육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계사밀폐와 단열보강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계사밀폐와 단열보강이 안되면 설령 열풍기 용량을 높인다 해도 계사내 온도유지가 어렵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그리고 여름철 지붕에 설치했던 차광막은 10월에 벗겨야 한다. 혹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릴 경우 차광막 때문에 눈이 쌓여 계사가 붕괴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0월부터는 완전발효가 되지 않은 계분은 모두 치우기를 권장한다.

10월부터는 계사가 밀폐되고 강제환기로 사육해야 하기 때문에 발효가 안된 계분을 재 사용할 경우에는 암모니아가스 때문에 정상적인 사육이 어렵고 성적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설령 완전 계분 발효가 되었을 지라도 사육 중 습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던지 계분을 치우고 깔짚을 새것으로 교체해서 정상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C